

여성표심으로 본 대선세미나 참가소감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제 4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제17대 대선은 네 명의 여성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것을 비롯해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예비후보들의 성인지적인 정책검증에 여성들이 나선 것이 역대 대선과 다른 점이다. 7월 31일의 여성표심으로 본 대선세미나 개최가 그 시작이다.

주최 측은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을 기준으로 국정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검증하고 또한 양성평등사회를 고대하는 여성유권자들을 도외시하고서는 승리의 고지를 차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당의 여성후보 전원과 6.28~7.5 간의 지지율 5% 이상의 남성후보를 대상으로 여성정책의 10가지 문제를 젠더관점에서 제시하고 수집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아직 예산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미비하나마 다음 정권의 여성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역대 정권에 비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한다.

여성경제참여율 60% 이상, 여성일자리 창출 100만개, 여성각료 30~50% 임명 등의 각 후보의 공통점을 통해 다음 정권의 여성정책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과제별 후보들 간의 차이점은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정당이 단일후보를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소속정당의 이념과 노선에 입각한 정당의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금번 세미나가 각 정당의 후보선정에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되게 한 것은 분명하다.

이 세미나는 1997년 15대 대선에 88개의 여성단체와 함께 TV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처음으로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공약을 이끌어내고 검증한 바 있는 여성신문이 주도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여성신문의 공신력을 믿고 대선후보들의 '여성을 위해 준비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서약에 증인이 되기 위해 100명에 가까운 여성오피니언지도자들과 매스컴이 대거 참여하였다.

예정과 달리 참여한 후보는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후보 4명뿐이었다. 참석을 약속했던 한나라당 후보는 나오지 않았다. 당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또 한명의 탈레반 인질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그날 아침 접하고 그에 대한 추모의 표시로 당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란단다. 필자도 가슴 아린 그 소식을 접하면서 '하느님 어디에 계십니까'를 중얼거릴 정도였으니까 충분히 이해된다.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면 시간이 있었을 터인데 나와서 애도의 뜻을 함께 나눌 수는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도 유감인 것은 만사를 제쳐두고 '여성이 묻는다, 준비되었습니까?' 세미나에 참여한 여성지도자들의 기대부응을 우선순위에서 배제시켰다는 점이다.

또 하나 여성표심으로 대선을 읽기위한 여론조사라면 그 대상이었던 1000명의 표본은 여성으로 한정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어쨌거나 세상이 변하여 여성대통령 아니면 성인지적인 사고를 갖춘 대통령을 제17대 대선에서 선출하게 되리라는 점은 설레게 한다.